

‘출판권’ 둘러싸고 문학출판사들 갈등

허락없이 선집형태 재수록해 피해 속출

문학과지성사가 최근 모든 문인들을 상대로 짤막한 편지 한통씩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편지를 받은 문인들은 물론이고 여타 문학 관련 출판사들까지 이 편지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출판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과지성사는 이 편지에서, 문학작품집을 출판할 경우 기왕에 그 작품을 출판한 출판사의 동의없이 그 중 일부를 재수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저작권법(출판권 포함)이 보다 철저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작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출판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문학과지성사의 김병익 사장은 “작가들은 물론이고 출판인들조차 저작권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특히 선집 형태의 출판인 경우, 타사의 출판물에 수록돼 있는 작품들을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해당 출판사의 동의없이 재수록하여 출간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고 편지에 담긴 의도를 밝힌다. 외국의 경우, 이같은 개인선집 출판은 거의 없고 설혹 있다 하더라도 자사 출판물 중에서 저자의 동의를 얻어 출판하는 경우 뿐이며, 만약 타 출판사가 재수록해야 한다면 해당 출판사와 작가 모두에게 재수록료를 지불한다는 설명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위기의식 팽배

이처럼 문학과지성사가 출판권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근래 동아출판사, 민음사, 솔출판사, 도서출판 삼성 등 굴지의 문학출판사들에 의해 자사 출판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 그 계기가 됐다. 특히, 동아출판사가 방대한 규모의 소설전집을 출간하면서 문학과지성사측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자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위기의식을 문학과지성사 경영진이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동아출판사는 전집 출간을 위해 문학과지성사의 동의를 구하면서 ‘전집판매’만을 한다는 조건으로 ‘작품을 재수록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으나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의 발단이 됐다. 부득이 날권 판매를 할 경우 그 단가를 문학과지성사의 단행본

개정 저작권법 발효를 앞두고 출판계가 출판권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으며 비합리적인 기존 계약 관행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출판계 전체에 걸쳐 첨예하게 드러날 전망이어서 성숙한 계약문화의 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또한 무시됐다는 것이 문학과지성사의 주장이다.

이에 당시 동아출판사의 전집출판을 담당했던 허정구씨(현재 이야기꽃 대표)는 “영업전략상 날권 판매를 하지 않고 방대한 규모의 전집을 출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단가 문제 또한 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모호한 형편이다”라고 말한다. 단가를 비교 할 경우, 동아출판사가 1천원에서 2천원 가량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동아출판사의 각권 분량이 문학과지성사측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성향에 따라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문학과지성사로부터 재수록을 허락받는 과정이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돌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하여 뚜렷하게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동아출판사측은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관하고 있는 데 반해 문학과지성사는 만약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작권심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계약문화 성숙해야

민음사는 ‘오늘의 시인총서’와 ‘오늘의 작가총서’의 일부가 문제가 됐다. 올해들어



선집 형태의 재수록로 출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식의 제고가 요구된다.

최인훈씨의 《웃음소리》 중에서 여섯편을 문학과지성사의 《최인훈 전집》에서 사전동의 없이 재수록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 제작진행중인 상당수의 책들이 재수록 작품들로 엮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학과지성사측이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특기할 것은, “계획이 잡혀 있는 다른 책들은 작업을 중지하겠다. 그러나 이미 조판까지 끝낸 책이 하나 있으니 그 책만은 출판하게 해달라”는 민음사측의 요구에 대해 문학과지성사가 “조판비를 줄 테니 우리에게 그 책을 팔라”고 답함으로써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혀 출판권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민음사는 올해 출판하기로 계획했던 선집 중에서 재수

록에 의한 선집은 출간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갈등이 일단락지어졌다.

솔출판사는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행본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조세희 지음) 한권을 모두 재수록 작품들로 엮어 출간해 문학과지성사측의 항의를 받았다.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을 보고서야 우리 작품들이 재수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은 재수록은 엄연히 위법 행위라는 점을 솔출판사측이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 저작권법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문학과지성사의 채호기 주장은 그간의 경위를 밝힌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용인되어왔기 때문에 그같은 ‘재수록’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본원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원 발행 취업예정자 명단을 받아보지 못한 업체께서는 연락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편집 취재기자로 첫발을!



편집교육을 국내 최초로 본격화시킨 교육기관

1987년 출판문화의 선진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편집 실무교육을 연구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편집실무교육안과 교재개발을 완료하여 1988년 3월 국내 최초로 당국의 인가를 받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되었습니다.

각 반별로 담임강사가 진행

각 반별 담임 강사들은 "선배 편집인의 후배 교육"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한 교육내용 중 때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각 반별로 담임강사가 진행

각 반별 담임 강사들은 "선배 편집인의 후배 교육"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한 교육내용 중 때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교육은 완전히 배제

본격적인 출판편집실무교육의 장으로 본원의 교육성과를 인정하여 본원을 한국출판학회의 추천교육기관으로 선정(89.1.30)해 주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편집인력의 지정교육기관으로 위촉(88.12.28)하였습니다.

수료후 취업문제

본원을 수료하면 전원 100% 취업이 보장된다는 알파한 문구는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료생 전원 이 안정된 취업을 목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94년 5월 현재 총 수료생의 95%가 취업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편집현장과 밀착된 교육체계

출판현장에서 필요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교육과 출판사, 제책소 인쇄소 등을 견학하여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정립하여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료후 취업문제

본원을 수료하면 전원 100% 취업이 보장된다는 알파한 문구는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료생 전원 이 안정된 취업을 목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94년 5월 현재 총 수료생의 95%가 취업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과정보별 잡지 단행본을 직접 기획 제작

체계적인 편집이론과 충분한 실습을 거친 후에 잡지, 단행본 등 개별 과정보로 시판중인 잡지, 단행본 등과 동일한 수료작품집을 직접 기획 제작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자출판 실무교육 실시

현재 출판계 편집자나 처음으로 컴퓨터 편집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초보자일 경우는 본인 정규과정 중 기본과정 이수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없이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웃지 못할 사실은, 술출판사가 이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학과지성사의 단행본으로부터 작품들을 직접 재수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오래 전에 똑같은 책이 도서출판삼성에 의해 문학과지성사도 모르게 출간돼 있었고, 술출판사는 그 책을 모델로 하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출판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저작권 관련한 갈등 첨예해질 전망

"기껏 작가를 발굴하고 투자를 해냈는데 알맹이만 썩썩 빼가서 책 한권을 묶어내면 우리더러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느냐"는 볼멘 항변 외에는 막상 출판권을 침해당했을 때 달리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데에 매이저급 문학출판사들의 고민이 있다. 창작과비평사의 고세현 편집국장은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냐. 출판사들 스스로 각성해서 서로의 출판권을 지켜주기 위해 애쓰지 않는 한 소모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라며 근본적으로 출판권을 도외시하는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꼭 필요해서 작품집을 내는 작가들이 많지 않다.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는 어느 작가의 경우, 새 작품이 하나 나오면 그 작품에 기존 작품들을 합해서 새로 책 한권을 만들어낸다. 이런 점은 작가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며 작가들 몫의 책임을 언급했다. 작가들로서는 사방에서 중복출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양식없는 행동임을 자각하고 지성인답게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2차 저작권이 중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 분야에 대한 출판사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일부 일간지처럼 시를 게재하면서 '재수료'는 커녕 상의 한마디 하는 법이 없는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학동네의 김정순 편집장도 "책 전체의 20% 이내에서 재수료되는 경우는 관행을 따르되 그 이상일 경우는 재수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만약 우리 의사에 반해서 재수료이 이루어진다면 솔직히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

다"고 말해 문학전문 출판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는다.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서로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이 현실적인 타개책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번역서의 경우는 좀 나은 편이지만 창작집의 경우는 거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부분 계약서 없이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출판품도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최경수 자문위원은 "구두에 의한 계약은 훗날 기억의 차이와 해석의 차이를 낳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성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치밀한 서면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출판계 실정을 꼬집는다.

베른협약과 출판시장 개방은 작가의 저작권 못지않게 출판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출판사들간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구두계약이나 요식행위에 불과한 허술한 계약서로는 출판사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으로 외국출판사들이 국내에 진출했을 때 시장을 쉽게 잠식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라며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동림 기자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분)

30,000원

* 반년분(11호분)

16,000원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 SE OULE DITORIAL DE SIGNS

CHOOLE OULE DITORIAL DE SIGNSCHOOL SE OULE DITORIAL DE SIGNS